



2018/01/29

# 현대위아(011210)

## 아직까지는 완성차 개선의 천수답 상황

### ■ 4Q17 Review – 아직까지는 완성차 개선의 천수답 상황

중국의 Turn around와 기계부문의 회복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시기상조였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비 8.8% 감소한 1.8조, 영업이익은 -716억원으로 적자전환 되었다. 부문별 매출액은 차량부품이 전년동기비 10.9% 감소한 1.6조, 공작기계가 전년비 7.4% 증가한 2,61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두 부문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차량부품이 466억원의 적자를, 공작기계 역시 2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까지 중국에서의 BHMC, DYK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차량부품이 1.7%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에 반해, 중국에서만 13만대 이상 더 생산했던 4분기가 오히려 더 실적이 악화되었다.

원인으로는 ① 이미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던 통상임금 관련 추가부담(피합병 법인인 메티아, 위스코 근로자 대상) 금액 399억원이 실적에 반영되었고, ② 불리하게 전개된 환율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③ 중국에서 Full capa를 염두에 둔 대규모 투자 이후 낮은 가동률 부담과 ④ 서산, 멕시코의 대규모 투자 이후 초기가동 부담도 지속되었다. ⑤ 국내의 파업영향과 낮은 생산규모도 부품업체에겐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일회성 요인인 통상임금 부담 399억원을 제거한다고 해도 매출원가율은 97.9%에 달해 흑자전환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결국 완성차의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여전히 건강한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4분기 실적이었다.

### ■ 1Q18 Preview – 여전히 어려운 환경

이번에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통상임금의 일회성 부담은 사라지겠지만, 현대, 기아의 자동차 생산이 先재고소진 전략으로 인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원화의 주요국 대비 환율이 4분기 대비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既수주에 의해 결정되는 공작기계도 큰 개선이 어려워 6분기 연속적자가 예상되는데다가, 환율까지 불리해 적자폭을 줄이는 수준으로 기대를 낮춰야 할 것 같다. 워낙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이후 낮은 가동률이 지속되는 구간이고, 1분기까진 신차 역시 미미해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힘들다. PTU가 장착될 신형 싼타페와 위아 엔진이 장착될 신형 K3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2분기 이후에나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자동차/타이어 고태봉

(2122-9214) coolbong@hi-ib.com

자동차/타이어 강동욱

(2122-9192) dongwook.kang@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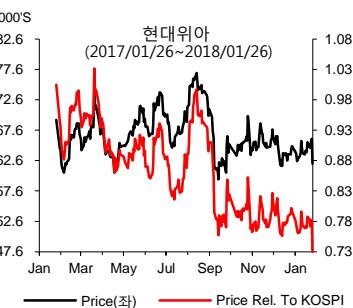
**Hold** (Maintain)

목표주가(12M)	70,000원
종가(2018/01/26)	62,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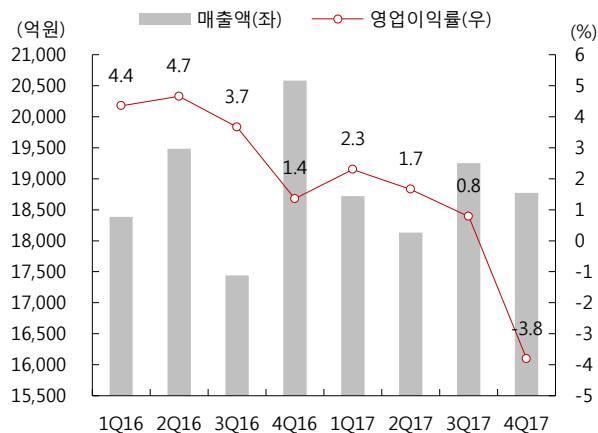
#### Stock Indicator

자본금	136십 억원
발행주식수	2,720만주
시가총액	1,689십 억원
외국인지분율	14.4%
배당금(2016)	1,100원
EPS(2017E)	-2,449원
BPS(2017E)	116,182원
ROE(2017E)	-2.0%
52주 주가	59,500~77,000원
60일평균거래량	133,006주
60일평균거래대금	8.6십 억원

#### Price Trend



&lt;그림 1&gt;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 적자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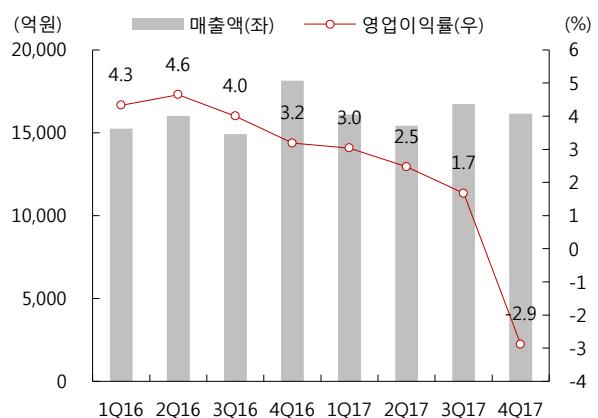
자료: 현대위아, 하이투자증권

&lt;그림 2&gt; 매출원가율 추이 – 일회성 요인 제거해도 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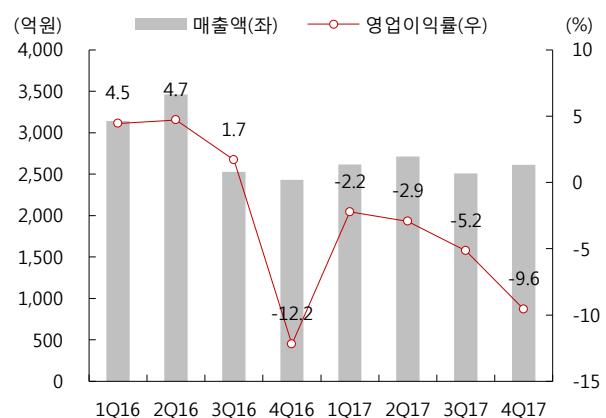
자료: 현대위아, 하이투자증권

&lt;그림 3&gt; 차량부품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 적자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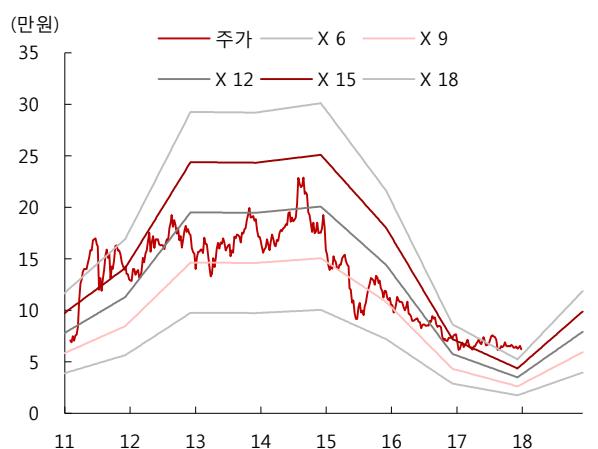
자료: 현대위아, 하이투자증권

&lt;그림 4&gt; 기계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 적자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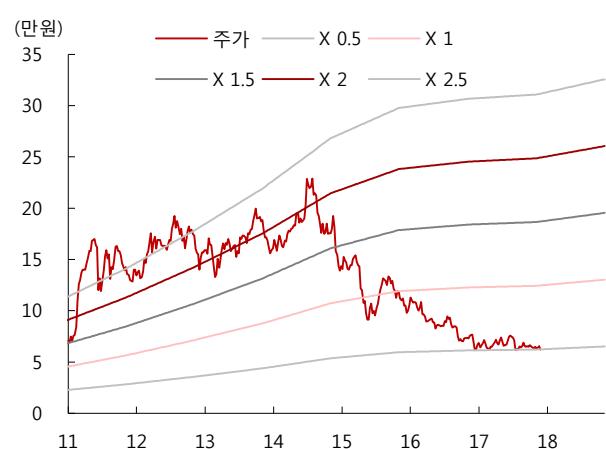
자료: 현대위아, 하이투자증권

&lt;그림 5&gt; 현대위아 PER Band



자료: Quantwise, 하이투자증권

&lt;그림 6&gt; 현대위아 PBR Band



자료: Quantwise, 하이투자증권

&lt;표 1&gt; 17년 4분기 실적 및 18년 1분기 실적 전망

	4Q16	1Q17	2Q17	3Q17	4Q17	YoY	QoQ	1Q18E	YoY
매출액	20,581	18,718	18,133	19,251	18,772	-8.8%	-2.5%	18,594	-0.7%
차량부품	18,148	16,104	15,416	16,740	16,160	-11.0%	-3.5%	15,927	-1.1%
공작기계	2,433	2,615	2,715	2,511	2,612	7.4%	4.0%	2,667	2.0%
매출원가	19,532	17,595	17,178	18,411	18,770	-3.9%	2.0%	17,664	0.4%
%	94.9	94.0	94.7	95.6	100.0	5.1%p	4.4%p	95.0	1.0%p
판관비	770	693	654	689	734	-4.6%	6.5%	584	-15.7%
%	3.7	3.7	3.6	3.6	3.9	0.2%p	0.3%p	3.1	-0.6%p
영업이익	280	431	301	151	-716	적자전환	적자전환	345	-19.9%
%	1.4	2.3	1.7	0.8	-3.8	-5.2%p	-4.6%p	1.9	-0.4%p
차량부품	575	489	381	280	-466	적자전환	적자전환	319	-34.8%
%	3.2	3.0	2.5	1.7	-2.9	-6.1%p	-4.6%p	2.0	-1.0%p
공작기계	-296	-58	-80	-129	-250	적자지속	적자지속	27	흑자전환
%	-12.2	-2.2	-2.9	-5.2	-9.6	2.6%p	-4.4%p	1.0	3.2%p
영업외이익	227	-386	73	29	-854	적자전환	적자전환	-172	적자지속
%	1.1	-2.1	0.4	0.2	-4.5	-5.7%p	-4.7%p	-0.9	1.1%p
세전이익	507	44	375	180	-1,570	적자전환	적자전환	173	291.4%
%	2.5	0.2	2.1	0.9	-8.4	-10.8%p	-9.3%p	0.9	0.7%p
법인세	248	24	-28	46	-383	환급	환급	43	79.9%
%	49.0	54.4	-7.4	25.7	24.4	-24.6%p	-1.3%p	25.0	-29.4%p
당기순이익	229	20	403	134	-1,187	적자전환	적자전환	130	543.7%
%	1.1	0.1	2.2	0.7	-6.3	-7.4%p	-7.0%p	0.7	0.6%p
지배주주	229	20	403	134	-1,187	적자전환	적자전환	130	543.7%
%	1.1	0.1	2.2	0.7	-6.3	-7.4%p	-7.0%p	0.7	0.6%p

자료: 현대위아, 하이투자증권

# 투자전략

## 아직까진 완성차 개선의 천수답 상황

이미 xEV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졌다. 제품구성에서 컨벤셔널 부품이 위주가 되고 있음은 Valuation에서 큰 폭의 상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결국 실적개선이 주가회복의 Key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완성차의 생산량 회복이 위아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은 자명하다. 지난 한해 가장 위아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중국에서 현대와 기아는 17년 대비 각각 14.6% 증가한 90만대, 25% 증가한 45만대의 경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동률 회복’과 ‘누우엔진 사용정상화’로 대표되는 중국에서의 개선이 위아 차량부품 사업엔 가장 중요한 변화다. 중국 외에도 서산과 멕시코의 ‘대규모 투자 이후 회수’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향후 스마트스프링으로 명명되는 파워트레인 변화는 경량화 (소형엔진)+고도화 (터보차저)의 조합으로 연비개선 및 배출가스 저감을 꾀하게 된다. 위아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xEV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 3~4년 기간동안 기투자에 따른 밀도있는 회수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 기간이 주가회복의 기간이 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당장 1분기부터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18년 상반기 종으로 실적과 모멘텀의 저점이 나타날 것이다. 쉽지 않은 기다림의 기간이다.

## 질의응답

1. 15년 통상임금 소송 관련된 이슈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통상임금 이슈는 무엇인가?

→ 현대위아 근로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 포함 총 872억원을 15년 4분기 실적에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건은 현대위아에 합병된 워스코, 메티아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되어있다. 해당 내용은 사업보고서 통해 계속 공시했던 사항이다. 작년말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관련해 4분기 반영 소송관련 금액은 399억원이다. 당사는 1심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신의칙 관련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합리적 판결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당사는 노사가 지속 협의를 통해 17년부터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새로운 임금 체계 기준을 적용했다. 현재는 지연이자 반영부분 외에는 추가로 충당금을 쌓을 부분은 더이상 없다.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인 합리화, 생산성 향상, 특근 최소화 등을 통해 안정적 원가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 중국 회복에 그룹사 전체가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중국시장 전망이 궁금하다. 또한 산동법인 누우엔진 가동률 전망, 엔진 외부 수주 진행 상황 업데이트 부탁드린다.

→ 17년 중국시장은 정치적 이슈 등으로 완성차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동엔진 법인을 비롯해 강소법인 터보차저 등 중국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올해 중국 자동차 수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 판매는 사드 이슈의 점진적 완화 기조 및 신차 모멘텀 확보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8년 중국 엔진사업은 소형차 구매세 인하 종료, 현대 ix35, 기아 전략형 SUV, 쏘나타, K5 HEV, PHEV 등 누우엔진 탑재 신차효과로 전년대비 30% 증가를 예상한다. 그룹 완성차의 중국외 타지역 해외공장으로 엔진 공급을 지속 확대 중이다. 산동법인 라인업 확대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며 더불어 중국 로컬업체 대상 엔진 외부 판매를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19년 이후부터는 타OEM으로부터의 신규 매출 창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엔진 외 소재부품, 등속조인트, 터보차저 사업도 완성차 판매와 연계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사는 중국 사업이 고성장하면서 당사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했었다. 최근 중국사업 부진으로 정체되어 있지만 올해는 물량 반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던 서산, 멕시코 신규 공장에서 올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면 글로벌 시장에서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3. 기계 부문이 5분기 연속 적자이고 적자 폭 자체도 가늠하기 어렵다. 기계부문 관련 18년도 공작기계, FA 부문별 신규 수주, 기대하는 부분, 수익성 측면에서 가이던스 부탁 드린다.**

→ 기계부문은 경쟁 심화, FA 등 주력 사업군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다. 올해 기계부문 글로벌 업황은 국내, 중국 등 주요시장에서 수요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업체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여건 속 범용기, FA 등 공작기계 기반의 사업기계 역량을 집중해서 신규수주 1조1천억, 흑자전환 목표를 계획 중이다. 사업목표 달성을 통한 상품성 강화, 영업력 강화, 조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상품성 강화 관련해서는 원가 및 상품 경쟁력이 강화된 신기종 및 중고가 기종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을 전체 판매의 50% 이상으로 확대해 믹스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업력 강화 부분은 해외딜러 대형화와 우수딜러를 10% 이상 확충하고 신규시장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판매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직 효율화 부문은 생산, 판매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 니즈에 대응할 계획이다. 사업부진으로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산업기계 부문에서는 조직 인력을 재배치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A부문은 16년 하반기 이후 그룹사 신증설투자가 축소되어 성장이 정체되고 있지만, 그룹사 파워트레인 교체 투자 설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성, 영업력, 조직 외 R&D, 원가 경쟁력, 브랜드 전략 등 근본적 경쟁력 개선을 추진해 올해 기계부문이 턴어라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4. 공장별 올해 전망과 신규 증설투자 업데이트 부탁드린다.**

→ 국내 평택과 서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카파엔진은 터보트림 확대 영향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현재 서산공장에서 10만대 증설을 진행 중이다. 금년 상반기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50만대 이상의 물량을 공급 가능하다. 서산 디젤엔진 공장은 글로벌 디젤 수요 감소 등으로 17년 생산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많이 부진했다. 디젤엔진 수요 불확실성에 대비해 상반기 내 생산기종 다변화 투자를 완료해 연간 20만대 이상 물량을 공급하는 등 향후 안정적 공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멕시코공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물량이 점차 증가해 공장 운영이 안정화되었다. 미국의 대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최대 볼륨 차종인 K3가 풀체인지되고 엑센트 물량 증가로 30만대 이상의 물량을 계획 중이다. 등속조인트도 금년 내 100만대 캐파로 확대해 그룹 완성차 및 타OEM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중순부터 독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터보차저사업도 작년에 20만대를 공급했고 올해는 독자 기술로 개발된 터보차저도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룹 내 터보차저 수요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여 당사 공급 물량도 가파른 성장세를 예상한다. 그룹 내 4륜구동 공급사로 빠르게 증가하는 SUV 수요에 대응해 4륜구동 부변속기 PTU를 15만대 생산할 예정이며 작년 독자 개발에 성공한 전자식 사륜구동 부변속기도 공급물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터 기반 파워트레인 시스템 기술 개발 역량도 지속 확대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5. 현대차그룹 755만대 판매목표보다 위아의 매출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년 전반적인 실적 가이드라인과 부문별 운영 전략 말씀 부탁드린다.

→ 17년에는 전반적으로 그룹 완성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당사의 중국 사업 부진, 신규 공장 초기 비용 부담, 기계사업 부진 지속 등이 수익성 둔화에 주된 요인이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사 주요 시장인 한국, 중국, 미국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현재 완성차 판매 물량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대내외 변수가 위낙 많은 관계로 매출, 손익 등 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 대신 핵심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차량부품의 경우 글로벌 가동률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금년 완성차 국내 공장은 제한적 성장이 예상되나 16년부터 고정 비 부담이 컸던 서산 카파디젤공장과 멕시코 공장 가동률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사업도 완성차 판매 증가와 연계해서 누우 엔진, 터보차저 등 핵심부품 물량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기계부문은 외부 업황이 변수가 많고 현재 적자 운영되고 있어 공격적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 중심의 내실 경영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범용기는 원가구조와 상품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고부가가치 기종의 판매를 확대하고 FA부문도 수주 및 매출을 지속 확대해 반드시 텐어라운드를 이뤄내겠다. 종합적으로 전부문의 가동률을 향상 시키고 원가 혁신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확립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파워트레인 전문화 사로서 지속가능한 경영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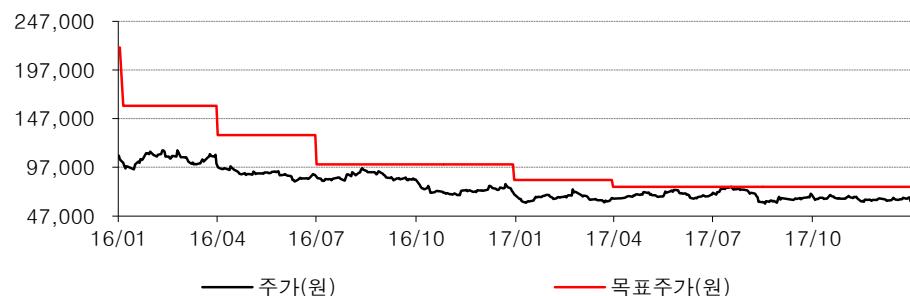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십억원)				포괄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16	2017E	2018E	2019E			2016	2017E	2018E	2019E
유동자산		3,743	3,556	3,536	3,767	매출액		7,589	7,487	7,662	8,169
현금 및 현금성자산		799	422	293	330	증가율(%)		-3.7	-1.3	2.3	6.6
단기금융자산		691	726	762	800	매출원가		7,013	7,195	7,200	7,494
매출채권		1,443	1,647	1,686	1,797	매출총이익		577	292	461	676
재고자산		772	719	751	792	판매비와관리비		314	277	298	378
비유동자산		3,279	3,359	3,388	3,422	연구개발비		19	19	19	21
유형자산		2,548	2,627	2,651	2,677	기타영업수익		-	-	-	-
무형자산		246	222	202	186	기타영업비용		-	-	-	-
자산총계		7,022	6,914	6,924	7,189	영업이익		263	17	164	298
유동부채		1,699	1,544	1,532	1,636	증가율(%)		-47.6	-93.6	879.2	81.9
매입채무		1,466	1,216	1,204	1,258	영업이익률(%)		3.5	0.2	2.1	3.6
단기차입금		-	-	-	-	이자수익		18	14	13	14
유동성장기부채		155	250	250	300	이자비용		45	51	50	50
비유동부채		2,065	2,215	2,165	2,115	지분법이익(손실)		15	-5	35	55
사채		957	1,157	1,157	1,157	기타영업외손익		-10	-71	-27	1
장기차입금		849	799	749	699	세전계속사업이익		233	-101	142	329
부채총계		3,763	3,759	3,697	3,750	법인세비용		102	-34	36	82
지배주주지분		3,259	3,160	3,231	3,443	세전계속이익률(%)		3.1	-1.4	1.9	4.0
자본금		136	136	136	136	당기순이익		131	-67	107	247
자본잉여금		501	501	501	501	순이익률(%)		1.7	-0.9	1.4	3.0
이익잉여금		2,690	2,597	2,674	2,892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131	-63	107	247
기타자본항목		-113	-113	-113	-113	기타포괄이익		-6	-6	-6	-6
비지배주주지분		-	-4	-4	-4	총포괄이익		125	-73	101	241
자본총계		3,259	3,155	3,227	3,438	지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131	-63	107	247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2016	2017E	2018E	2019E
영업활동 현금흐름		355	107	333	513
당기순이익		131	-67	107	24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	2	2	2
무형자산상각비		44	44	39	36
지분법관련손실(이익)		15	-5	35	55
투자활동 현금흐름		-470	-435	-367	-369
유형자산의처분(취득)		-438	-340	-290	-290
무형자산의처분(취득)		-48	-20	-20	-20
금융상품의증감		-40	-35	-36	-38
재무활동 현금흐름		331	216	-80	-29
단기금융부채의증감		-	-	-	-
장기금융부채의증감		388	-50	-50	-50
자본의증감		-	-	-	-
배당금지급		-29	-29	-30	-29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215	-378	-128	3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585	799	422	293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799	422	293	330

주요투자지표					
		2016	2017E	2018E	2019E
주당지표(원)					
EPS		4,807	-2,449	3,920	9,084
BPS		119,823	116,182	118,803	126,588
CFPS		6,466	-669	5,451	10,487
DPS		1,100	1,100	1,100	1,100
Valuation(배)					
PER		15.2		15.8	6.8
PBR		0.6	0.5	0.5	0.5
PCR		11.3	-92.9	11.4	5.9
EV/EBITDA		8.0	44.0	13.6	8.1
Key Financial Ratio(%)					
ROE		4.1	-2.0	3.3	7.4
EBITDA 이익률		4.1	0.8	2.7	4.1
부채비율		115.5	119.1	114.6	109.1
순부채비율		14.5	33.6	34.1	29.8
매출채권회전율(x)		5.0	4.8	4.6	4.7
재고자산회전율(x)		9.8	10.0	10.4	10.6

자료 : 현대위아,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현대위아)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를 고려한 평균주가대비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6-02-01	Buy	160,000	6개월	-33.7%	-28.4%
2016-04-28	Buy	130,000	6개월	-30.7%	-24.5%
2016-07-28	Hold	100,000	6개월	-12.6%	-3.8%
2016-10-27	Buy	100,000	6개월	-26.5%	-16.5%
2017-01-26	Buy	84,000	6개월	-21.8%	-11.4%
2017-04-27	Buy	77,000	6개월	-11.1%	0.0%
2017-07-04	Hold	77,000	1년	-13.6%	0.0%
2018-01-29	Hold	70,000	1년		

###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고태봉, 강동욱](#))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12-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1 %	6.9 %	-